



## [교역동향] 美, 지난해 유제품 수출 6.6조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

- 지난 2019년 대비 수출량 10%, 수출액 9%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미국의 유제품 수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무부(USDA) 산하 해외농업국(FA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유제품 수출량은 약 2,400천톤으로 2019년 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총 유제품 수출액은 약 60억달러(약 6조 6천억원)로 2019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미낙농식품협회(IDFA)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제품 수출 시장은 아주 성공적인 한해를 보냈다고 하며 특히 수출액은 지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시장의 수출액이 2019년 대비 46-50% 증가하며 유제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년 전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던 유제품 시장이 발전을 거치며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일부 주요 수입국의 미국산 유제품 수입량은 감소했다며 미국 유제품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2월 16일 >

## [정책동향] 몰타, 코로나19로 '바우처 우유급식' 시행

- 매달 일주일에 한번 500ml 저지방 우유로 교환 가능



이탈리아와 인접한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에서 2020/21학년도 우유급식이 시행될 계획이다.

몰타의 학교우유급식은 건강한 식단에서 우유의 영양학적 효과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학교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정부와 유럽농업보증기금(EAGF)에서 예산을 할당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최근 몰타 정부는 금년 신학기를 맞아 학교우유급식에 441천유로(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교내 공급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존 공급량 보다 두 배 많은 양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소속 초등학교 3-11세 어린이 중 신청자에 한해 일주일에 한번 500ml 저지방(2.5%) 우유를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매달 각기 다른 색상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기한 내에 몰타의 모든 식료품점과 슈퍼마켓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 출처 : independent.com.mt, 2월 1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